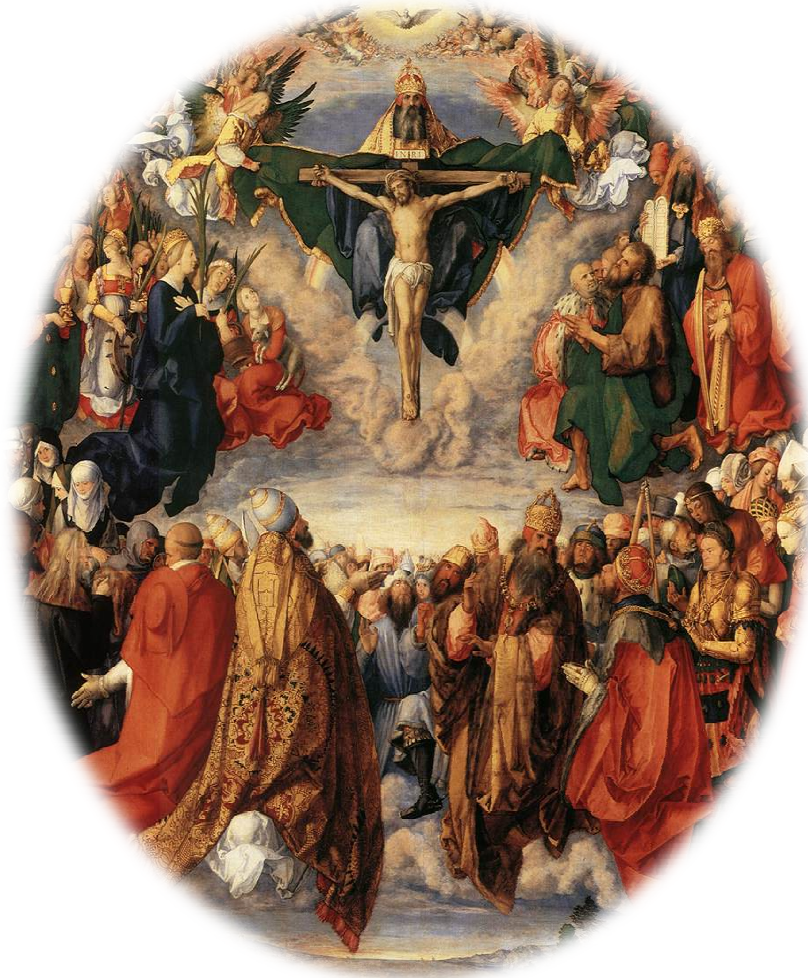


2014 6.15 삼위일체 대축일

제 1 독서 : 탈출기 34,4 ㄱㄷ-6.8-9 <주님은,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

제 2 독서 : 코린토 2 13,11-1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

복 음 : 요 한 3,16-18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제 1 독서 탈출기에서는 모세가 하느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느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수가 없어서 **아도나이** 라고 불렀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지극히 거룩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느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가치없이, 생각없이 부르지않나 싶습니다.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정상적이 아닌 사람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즉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의 복음에서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다시한번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하느님께서서는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제 2 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께서는 “**형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자신을 바로 잡으십시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엇인가가 잣대가 되어, 내가 내자신이 바로 사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있는 세상을 보면 옳고 그른 것이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바로 잡아 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 사람하고 내가 생각이 다르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잣대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열명이, 백명이, 천명이, 만명이 보아도 그 잣대가 똑같이 적용될수 있는 변하지 않는 잣대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주동안 **인간의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두터운 책이 바로 ‘**가톨릭교회 교리서**’ 입니다. 사실 예비신자 교리서로 사용하고 있는 교리책은 이것의 10 분의 일도 안되는 축약된 것이지요. 이외에도 우리 천주교회에는 이보다 더 두터운 **교회 법전**이 있고, 또 **공의회 문헌**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황님들의 **교서**도 있습니다. 저도 아직 다 보질 못했고 그래서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신자분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잘 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교만에 빠지다 보면 복음을 자기의 잣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공동체와 교회를 흔들고, 나아가 성삼위의 신비를 흔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 모든 것이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교리서의 1776 번에서 시작 하겠습니다. 1776 “**인간은 양심의 깊은 곳에서 법을 발견한다. 이 법은 인간이 자신에게 부여한 법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이 거기에 복종하여야 할 법이다.**” 이보다 더 깨끗하게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법이 무슨 법이냐 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인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께서도 “**하느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장에 당신의 법을 세우신다.**” 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민주주의처럼 내가 따라야 할 법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아니라, 이처럼 나에게 주어진 법을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순명이라는, 복종이라는 말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 소리는 언제나 선을 사랑하고 실행하며 악을 회피하도록 부른다.**” 하느님의 법은 내 이익과 상관없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줍니다. “**필요한 곳에서는 마음의 귀에 대고, ‘이것을 하여라.’, ‘저것을 삼가라.’ 하고 타이른다. 이렇게 인간은 하느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새겨 주신 법을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가 선택을 할때 우리는 이세상의 삶의 방법을 우리 마음에 담습니다. 그래서 장님이 되고 귀머거리가 됩니다. 즉 내 욕심, 내 욕망, 내 욕정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말씀은 듣지를 못합니다. “**양심은 인간의 가장 은밀한 핵심이며 지성소이다. 거기에서 인간은 홀로 하느님과 함께 있고 그 깊은 곳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것이 바로 양심의 법을 따르라는 가톨릭 교리입니다. 우리가 양심이 이끄는

곳에 깊숙히, 깊숙히 들어 갈수 있어야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웁게도 우리는 그 하느님을 두터운 핵 벙커안에 가두어 놓고는 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의 벙커, 내 욕정의 벙커, 내 방식대로의 벙커, 그 겹겹의 벙커로 하느님을 가두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를 바로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의 젊은이들은 무엇에 빠져 있느냐 하면, 과학이라는 허황된 지식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과학은 알고, 알고, 알다보면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과학의 이론은 가설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과학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북극이나 남극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천년 동안 해가 뜬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고 합니다. 우리 과학이 최근에 말하는 것은 어떤 과학자는 우주의 수축설, 또 어떤 과학자는 우주의 팽창설에 대하여 이야기 합니다. 블랙홀이란 것이 존재하므로 모든곳이 그 쪽으로 당겨져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주의 생성에 대하여 빅뱅설을 주장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아직도 못 찾는다고 합니다. 0.2 미리의 작은 분자가 빅뱅을 통하여 대 폭발을 하면서 이 성당을 만들고, 이 지구를 만들고, 이 우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엄청나고 복잡한 이론을 앞세워 가며 이런 논리를 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한분이라는 것, 이 삼위일체이론을 믿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또 무엇을 믿느냐? 우리 천주교의 잘못된 과거, 그것도 아주 일부인데 그 일부의 잘못을 천주교 전체가 잘못 한 것인양, 그래서 천주교를 비난하며 믿을 종교가 아니라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다른 종교들 (무슬림, 개신교등) 이 저지른 죄악들은 이루 열거 할 수 없을 정도 입니다. 다른 종교를 비난하고자 하는것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선 내가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야 되고, 또 안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0.2mm 의 작은 점에 불과한 한 분자가 138 억년전에 원인 모를 대 폭발에 의해서 순식간에 이런 우주로 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의 MIT 교수, 영국의 캠브리지대학의 교수입니다.

하느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천주교 신앙은 수천년동안 이미 삶을 통해서 경험을 했고 거기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현대는 젊으면 젊을 수록 과학을 신봉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경륜이 그만큼 짧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으면 많을 수록 그 분들은 하느님께 대한, 신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지식과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은 수천년을 통해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교회안에 진리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의 깊은 곳으로 올바르게 들어가서 우리의 깊숙히 깊숙히 계신 하느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신비도 우리의 머리로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깊숙히 계신 하느님께서 받아들이도록 하여 주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삼위일체 대축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은,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34,4 ㄱㄷ-6.8-9

그 무렵 4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 돌 판 두 개를 손에 들고 시나이 산으로 올라갔다.

5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싸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그곳에 서시어,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셨다.

6 주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며 선포하셨다. “주님은,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다.”

8 모세는 얼른 땅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며 9 아뢰었다. “주님, 제가 정녕 당신 눈에 든다면,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이 목이 뻗뻗하기는 하지만, 저희 죄악과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당신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다니 3,52.53.54.55.56

◎ 세세 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 주님,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

○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당신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

○ 거룩한 영광의 성전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 거룩한 어좌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 커룹 위에 앉으시어 깊은 곳을 살피시는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 하늘의 궁창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 서 말씀입니다. 13,11-13

11 형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자신을 바로잡으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하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12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1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16-18

16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17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8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